

2021년 4/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1. 9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1. 9. 1 ~ 9. 17(휴일제외 13일 간)
- 분석대상 : 153개 응답업체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수출위주 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위주 기업 (수출 50% 미만)
매수	22	131	35	118
비중	14.4	85.6	22.9	77.1

업종별(완성품 기준)									
	자동차	광학·정밀	공작기계	선박·해양	철도·항공	가전제품	발전·전장	기구·원자재	건설중장비
매수	44	8	32	23	8	28	17	24	20
비중	21.6	3.9	15.7	11.3	3.9	13.7	8.3	11.8	9.8

※ 업체별 업종 복수응답 가능

3. 조사내용

- 제조업 체감경기 현 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2021년 4분기 전망BSI '100.7', 3분기 실적BSI '79.1'

- 4분기 창원 제조업 경기는 3분기와 비슷한 수준(지수 강보합)으로 조사되었음. 매출, 생산량 증가에도 영업이익, 자금조달, 공급망안정성 등의 악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분기 실적BSI는 채산성 악화와 더불어 조업일 수 감소의 영향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음.
- 매출액(107.8), 설비투자(101.3), 사업장가동(102.6) 등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영업이익(91.5), 자금조달여건(90.8), 공급망안정성(94.7)은 악화 전망
- 산업생산과 매출액 증가에도 원자재·인건비·해상물류비 상승과 부품·원자재 수급 불안정,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 따를 것으로 전망

● 업종별(완성품 기준) 4분기 전망BSI

- 건설중장비(125.0), 선박·해양(117.4), 자동차(109.1), 공구·원자재(104.2), 공작기계(103.1) 업종은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
- 광학·정밀기기(87.5), 가전제품(71.4), 발전설비(72.2) 업종은 부정적 전망

● 응답업체 35.1%, 가장 큰 위험요인은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성'

- 다음으로, 수출위주 기업은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 내수위주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 응답업체 66.7%,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활동 변화 있었다'

- '기업활동 변화 있었다'는 응답, '300인 이상' 기업(93.7%)이 '300인 미만' 기업(61.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 기업활동 변화, '재택근무제, 비대면 회의 등 업무환경 변화'(42.5%) 꼽아
- 다음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ESG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높은 관심'(30.0%)
- 300인 미만 기업은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23.1%)

Ⅲ

2021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창원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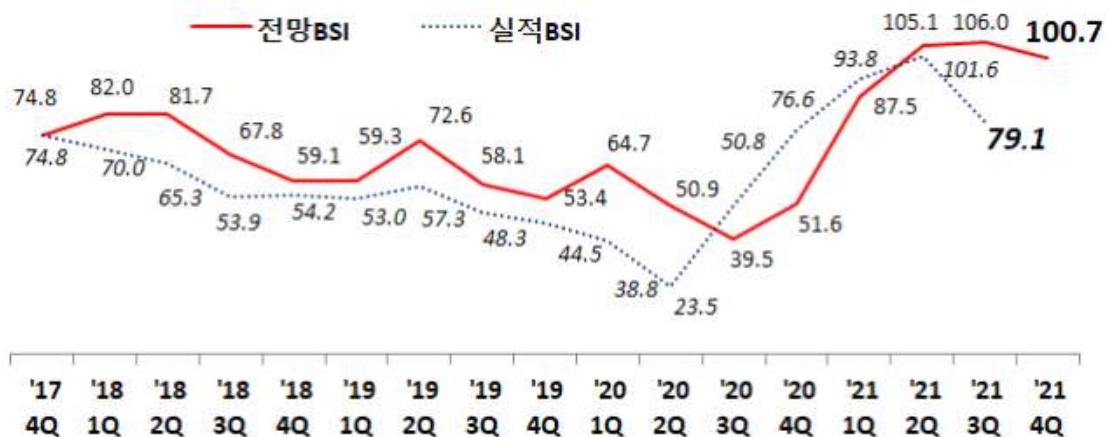
○ 창원지역 2021년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 지수)가 '100.7'(기준치 100)으로 조사되었음.

매출, 생산량 증가에도 영업이익, 자금조달, 공급망안정성 등의 악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나타난 실적BSI는 기준치를 밑돈 '79.1'로 조사되어, 3분기 전망BSI(106.0)와 비교적 큰 폭의 차이를 보였음.

이는 기존 채산성 악화가 현실화한 것과 더불어 휴가철, 연휴 등 조업 일 수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됨.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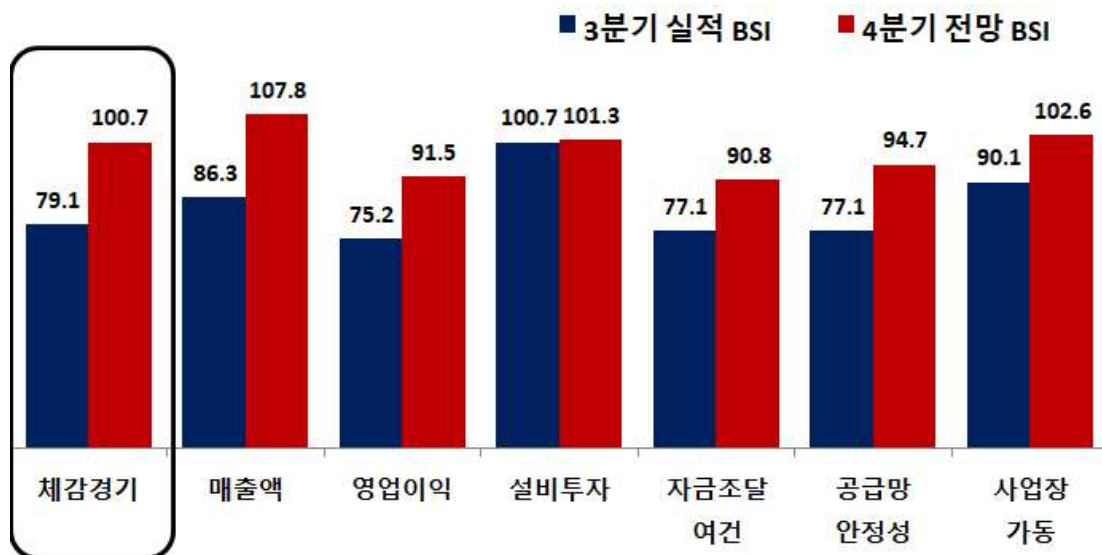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 항목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항목별 4분기 전망BSI를 살펴보면, 매출액(112.1)과 사업장가동(102.6), 설비투자(101.3) 부문은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91.5), 자금조달 여건(90.8), 공급망안정성(94.7) 부문은 기준치를 하회했음.
- 국내외 시장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특히 많은 기업들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상승, 해상물류비 상승, 반도체 수급애로 등으로 부품 및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금리인상 기조 등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품 기업의 상당 수는 기타 의견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사의 3분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밝혔고, 수주가 발생해도 주52시간 적용과 외국인근로자 수급 애로 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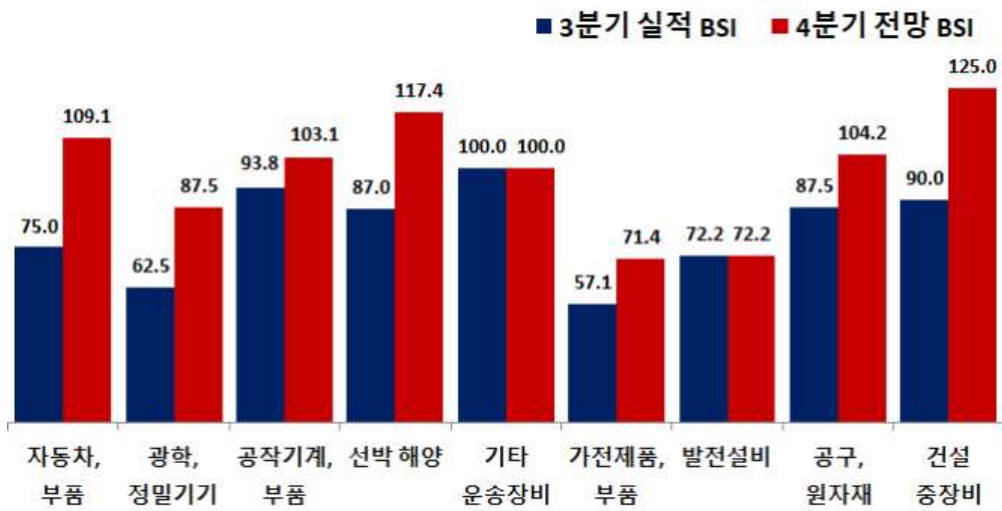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3. 업종별·기업형태별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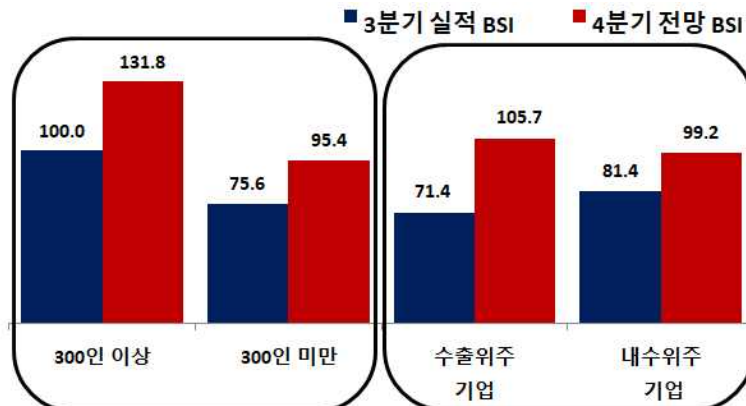
- 4분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업종(완성품 기준)은 ‘건설중장비’(125.0), ‘선박·해양’(117.4), ‘자동차’(109.1), ‘공구·원자재’(104.2), ‘공작기계’(103.1) 등이었고, 반대로 부정적 전망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광학·정밀기기’(87.5), ‘가전제품’(71.4), ‘발전설비’(72.2) 등임. ‘기타 운송장비’는 보합(100)을 나타냈음.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 창원 제조업의 규모별, 매출형태별 전망을 보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131.8)과 ‘수출위주’ 기업(105.7)은 4분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반면, ‘300인 미만’ 기업(95.4)과 ‘내수위주’ 기업(99.2)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기업 형태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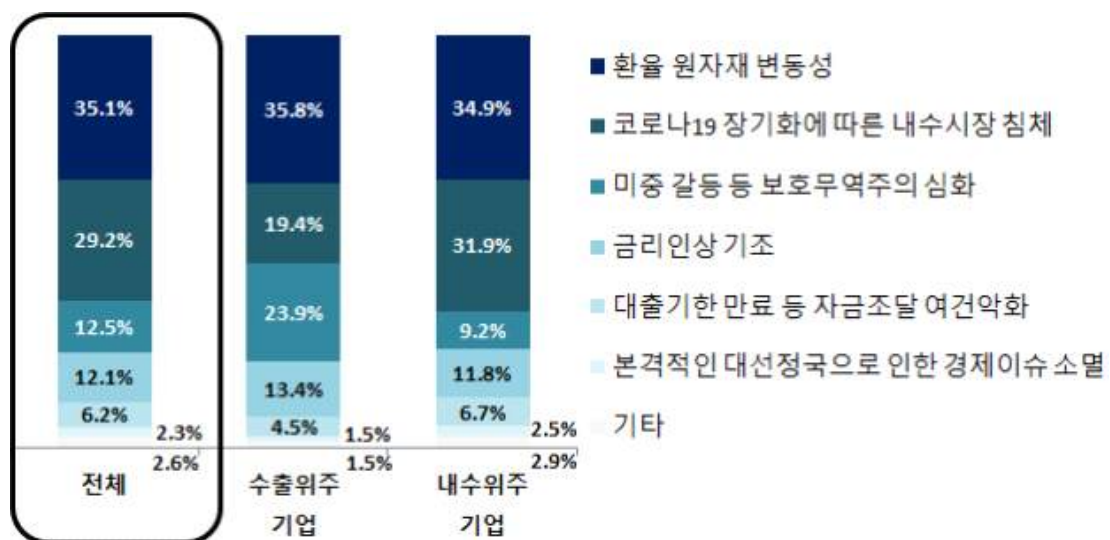
- 백신 접종률 확대로 교역량은 회복할 것이 예상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채산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대규모 기업은 4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원자재 조달과 인건비가 경영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수·소규모 기업은 반대의 전망을 내어놓고 있음.

IV 대내외 리스크와 근무환경 변화

1. 대내외 리스크 점검

- 창원지역 제조업(n=153)을 대상으로 금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35.1%가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29.2%),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12.5%), ‘금리인상 기조’(12.1%),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조달 여건 악화’(6.2%),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인한 경제이슈 소멸’(2.3%) 순이었음.

기업 형태별 대·내외 리스크 점검(n=153)



- 매출형태별로 ‘수출위주’ 기업은 ‘환율·원자재 변동성’(35.8%)과 ‘미·중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23.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위주’ 기업은 ‘환율·원자재 변동성’(34.9%)에 이어 ‘내수시장 침체’(31.9%)를 가장 많이 답했음.
- 환율과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로 꼽힌 것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창원 제조업의 특성(무역의존도 76.9%)이 반영된 것임.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품·원자재 수입 후 가공·조립을 거쳐 납품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수출기업 뿐 아니라 내수기업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2.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 및 근무환경 변화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활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66.7%가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음. 이 중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93.7%가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300인 미만’ 기업은 61.5%가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음.
- 변화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42.5%가 ‘재택근무제, 비대면회의 등 업무환경 변화’를 꼽아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 20.1%, ‘경제적 가치 창출 뿐 아니라 ESG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 19.4%, ‘스마트공장, AI·무인화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혁신기술 도입’ 14.2%, ‘기타’ 3.7% 순으로 답했음.

○ 근로자 수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재택근무제 등 업무환경 변화’(53.3%)에 이어 ‘ESG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더 많은 관심’ 30.0%을 꼽아 많은 비중을 나타냈음. 반면 ‘300인 이하’ 기업은 ‘재택근무제 등 업무환경’(39.4%)에 이어 ‘온라인 거래 와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를 23.1%가 꼽아 뒤를 이었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업활동 변화(n=86)

